

<세계경기>

일본 · 독일 경기 꿈틀거리는가?

세계경제가 9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지난 4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뚜렷한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경제는 90년들어 2.2%의 경제성장률로 전후 최저성장률을 보인후 91년에는 0.6%로 곤두박질 쳤었다.

그러나 94년들어 상반기에 2.7% 성장률을 보였으며, 하반기에는 3.2%가 전망되는 등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세계경제의 회복은 동아시아 경제의 고성장과 미국 · 유럽 등 선진국경기의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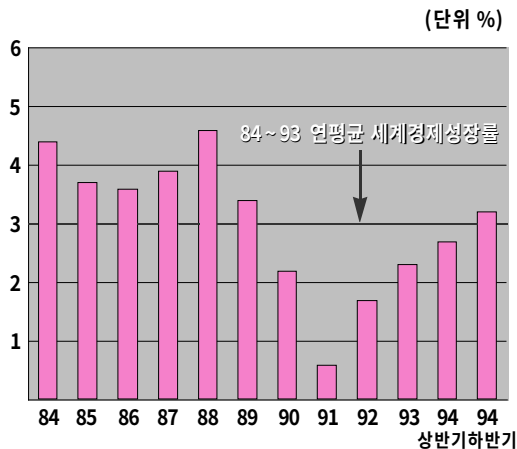
동아시아국가에서는 중국경제가 92년 12.8%,93년 13.4%의 고성장을 보인후 94년 상반기 12.5%의 높은 성장률이 이어졌고,지난 2~3년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향후 12%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곳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이외에 싱가포르 10.5%,말레이시아 8.3%, 타이 8.0% 등 신흥개도국들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 전반적인 세계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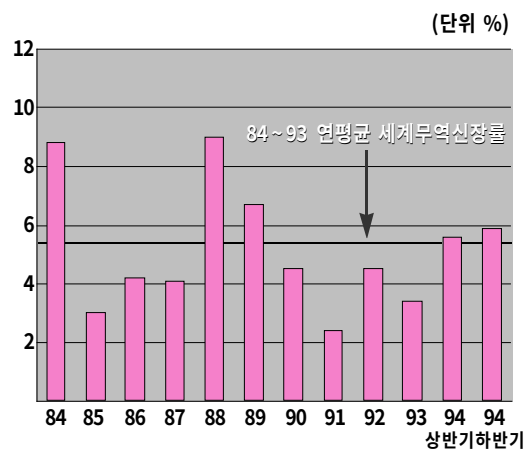
선진국 경기가 회복세로 반전한 데에는 미국 · 독일 등의 금리인하를 통한 총 수요 부양책,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경영혁신 등 불황기에 취해진 꾸준한 경기부양 노력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1/4분기에 3.0% 성장률로 93년 4/4분기의 7%라는 유례없는 고성장인 다소 주춤하기는 했으

【그림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그림2】 세계 무역성장률 전망



나 2/4분기에는 민간소비와 투자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성장률이 다시 4%선까지 회복, 상반기중 3.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93년 마이너스 0.3%의 성장률을 기록한 EU경제는 94년 상반기에 경기저점을 통과, 1.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에는 1.7% 안팎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가별로는 93년 마이너스 0.13% 성장하는 등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였던 독일경제가 94년들어 수출 회복, 저금리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1.3%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경제의 회복세는 계속 이어져 하반기에 1.7%, 연간으로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일본경제는 94년상반기에 개인의 소비지출 회복,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가 뒷받침되면서 경기 저점에서 벗어나 회복의 초기국면에 진입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하반기에 다소 가시화돼 하반기 성장률은 1.5%, 연간으로는 0.9% 수준의 완만한 회복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